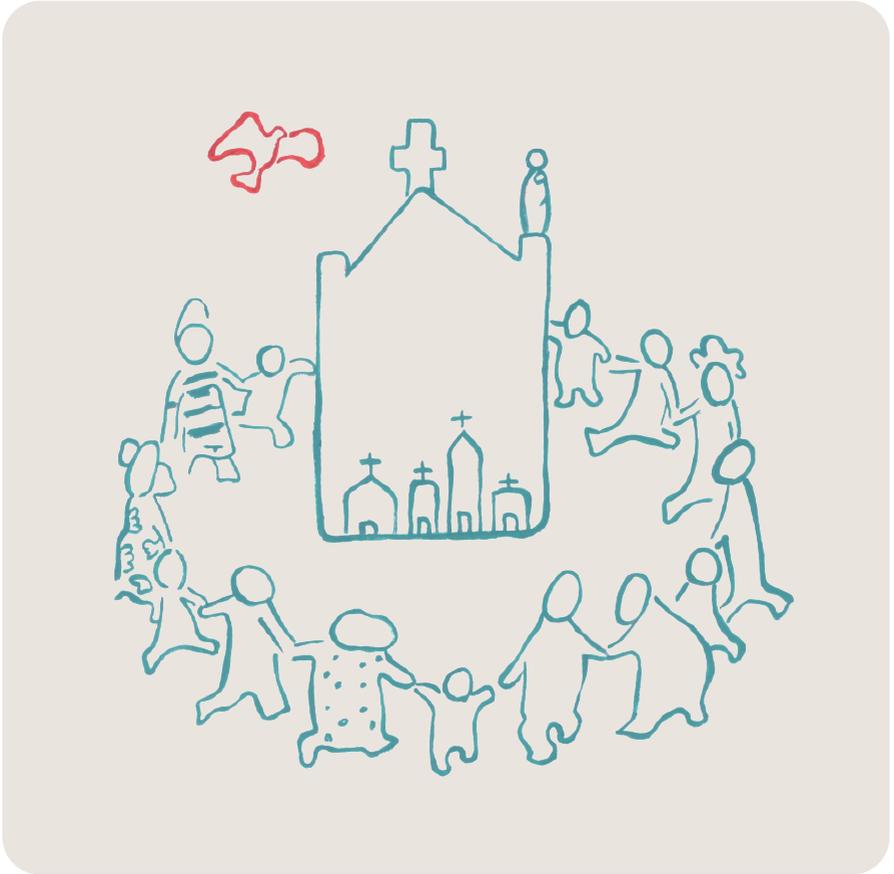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01 제143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이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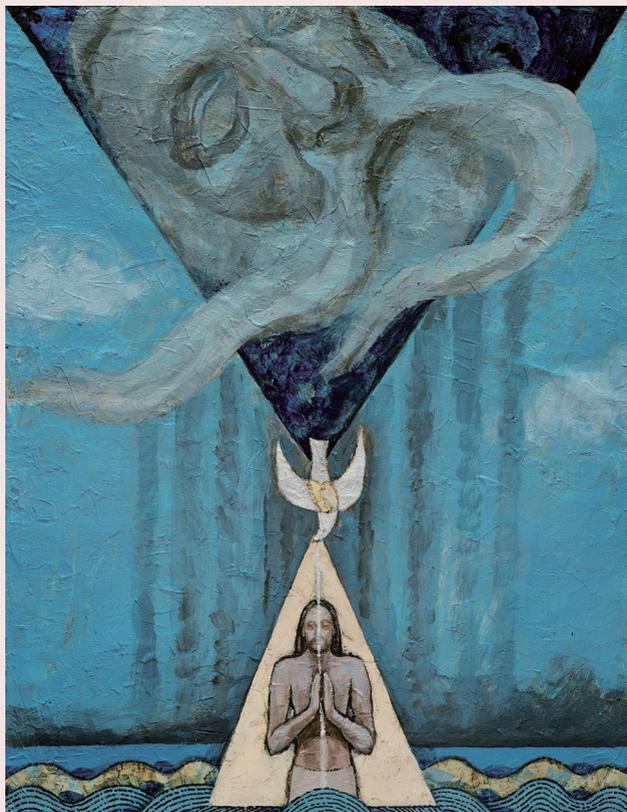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주님 세례 축일(1월 10일) 세례를 받으시다 (마르 1,7-11)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축복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머무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주님의 장엄한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들에게 세례의 순간은 회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입니다.

그림 / 정미연 소화데레사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요한은 7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마르 1,7)

나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였습니까?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르 1,11)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떠한 해야 합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주 하느님의 외아드님 구세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하여 세례 받으신 오늘이 복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인간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아마도 이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서시는 복음의 여정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까요. 하느님께 어떻게 다가서야 할 지 모르는,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인간에게 창조주께서는 스스로 찾아오시고 다가서십니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바탕입니다. 이러한 든든한 반석위에 겸손이 싹트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결코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

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에 걸맞을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걸맞을 수 있도록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2주일(1월 17일) 첫 제자들 (요한 1,35-42)



첫 제자들의 기쁨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실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의 벅찬 기쁨이 번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석이 되어 준 세례자 요한의 길잡이 역할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지요. 이들 첫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용기 있게 청해봅시다.

그림 / 정미연 소화데레사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9번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35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42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요한 1,37)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고 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요한 1,39)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나서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서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연이 필연이 되어져가는 시작점일까요. 서로가 ‘눈여겨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연은 필연이 되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스쳐지나가는 많은 이들 중, 나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반석과 같은 누군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반석이 되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이가 되어주고 있는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묵상하고 기도해봅시다.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묵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9번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봉사의 기쁨

남해본당 여부회장 김현숙 로사리아

남해본당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는 경치가 아름다운 보물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입 교우가 많습니다. 남해본당 소공동체는 5구역 16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구역에서 반 별로 돌아가면서 매월 첫 주에 점심을 준비하여 주일미사 후 모든 교우가 다 함께 사랑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본당 신부님과 사목회장 박완규(토마스 아퀴나스)형제님을 비롯하여 사목위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뜻깊고 보람 있는 일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면사무소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삼동 구역 네 가구를 찾아내어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삼동, 창선 구역 자매님들, 사목회 회장단, 구역분과, 사회 복지분과, 시설분과 위원들이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고 오래된 TV를 새로 바꿔드렸으며, 오래된 창문을 알루미늄 창틀로 교체하여 드린 곳도 있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씬짓돈과 몇몇 신자들의 봉헌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모니카회의 도움을 받아 구역분과에 반찬 봉사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인하여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구역도 함께 봉사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구역분과에서는 각 구역 반장님들을 통해 미사 중단 및 재개 소식을 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미사가 시작되면서는 발열 체크, 손 소독, 성당 출입기록을 맡아 했으며,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목위원들과 합동으로 본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상품권을 준비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구역분과

에서 각 구역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당에 나오시지 못한 어르신들께는 반장님들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 전해드렸고, 59주년 본당의 날에는 음식 대신 수건을 준비하여 교우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성당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께도 반장님들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반장님들께서는 생업으로 바쁜신 중에도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셔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공동체 모임을 하지는 못하지만 부고가 나면 연령회와 협조하여 각 구역에 소식을 전합니다. 반장님들은 반원들께 연락하여 위로하고 기도하며 최소 인원으로 상가를 방문하여 연도를 바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성당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 때의 구역별 장기자랑이 지나간 추억이 된 듯 아쉽고 그립기만 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물러가 본당 식구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신앙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소공동체란 무엇인가요?

1. 새로운 복음화의 노력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소공동체’(小共同體, Small Christian Communities)라는 용어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에서 태동한 ‘기초 교회 공동체’와 아프리카 교회에서 출발한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지닌 의미가 어우러져 토착화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곧, 소공동체 사목은 신앙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으로 새롭게 돌아가, 그 힘으로 공동체 본래의 아름다움인 ‘작은 사람, 작은 공동체들’이 교회 활동의 중심에 바로 서는 ‘친교의 교회상’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복음화의 노력인 것입니다.

2. 교회됨의 새로운 방식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톨릭 교회가 내적으로는 ‘말씀과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친교’를 이루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시대의 징표’를 읽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화의 요청’으로 태동한 ‘소공동체’는 보편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됨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함께’ 참여하는 ‘작은’교회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적절한 용어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추구하는 가치를 용어에 온전히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소공동체를 정의함에 있어 특정 구성 요소들로 한정하기보다, 교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정신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법까지 그 의미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곧 “평신도들의 자발성이 드러나고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모임이면 ‘소공동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음’(小, Small)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소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과 보잘 것 없는 이들이 삶의 자리와 교회의 중심’에서 소외되지 않는 ‘하느님 앞의 작은 교회’를 표방합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 「한마음 한뜻으로」 소공동체 교육교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